

이 슈 ●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아내 사랑의 새 대안 '부모성 함께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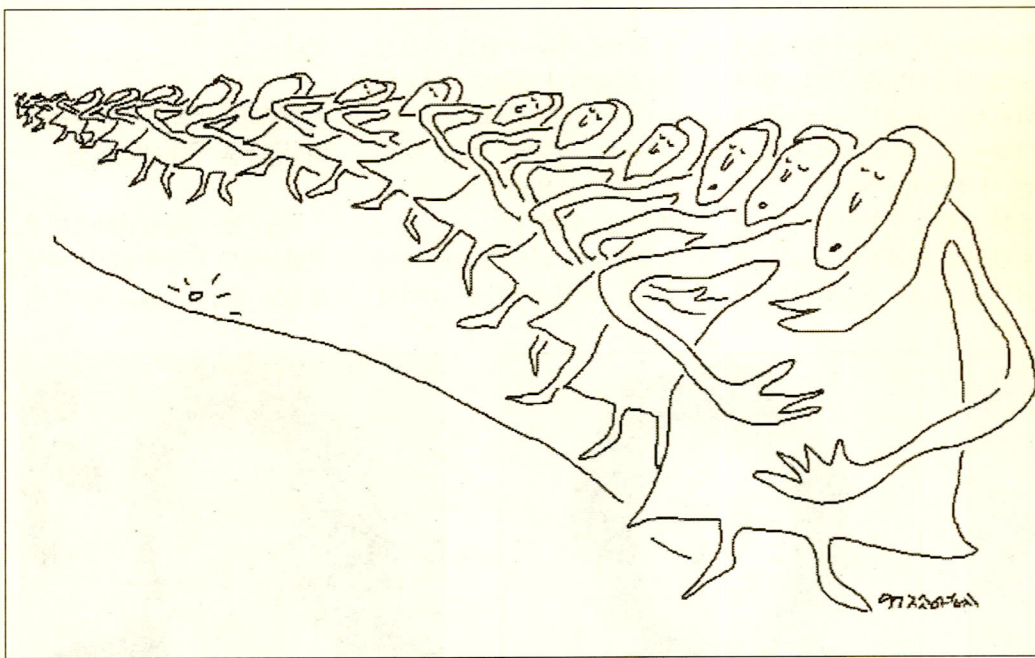
페미니즘 생소한 40대도 '부모성 함께...' 뱃지 착용으로 동참 시도하길

아내(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고은 광순 간사)는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아내의 주장들이 역지는 아닌 것 같아 지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의 날' 대회에서 발표된 '부모성 함께 쓰기'에 발기인으로 함께 동참하였다. 물론 한평생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로 일생을 희생하신 나의 어머니 성씨가 내 이름자에 쓰여지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첫 아이를 출산하기 전 부터 아내는 내 집안의 돌림자를 쓰지 말자고 하였다.

엄마의 반쪽 씨앗과 아빠의 반쪽 씨앗이 만나 온전한 생명이 되는 것인데 성씨도 남자의 성을 따르면서 이름 두 글자에 마저 남자 집안들의 돌림자를 넣는 것은 여성을 소외시키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아내의 말대로 아이가 출생하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 집안의 돌림자를 넣으며 아버지의 호적에 올리게 되어 있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출생에 있어 여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것임에 틀림없다. 여성을 남자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수단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나는 아내의 주장대로 두 아이 모두에게 돌림자를 쓰지 않았으나 아버님에게는 다른 핏계를 대었다. '돌림자를 넣는 것은 아이들 사주와 맞지 않는다'라고, 아버님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족보에는 돌림자를 넣은 다른 이름으로 올리자고 하신다. 딸의 이름은 족보에도 올리지 않고, 며느리와 딸들에게는 명절 때 남자집안의 조상만을 위한 음식만들기를 시키면서 정작 조상 앞에 절도하지 못하게 하는 가정이 아직도 많이 있다.



엄마의 반쪽 씨앗과 아빠의 반쪽 씨앗이 만나 온전한 생명이 되는 것인데 성씨도 남자의 성을 따르면서 이름 두 글자에 마저 남자 집안들의 돌림자를 넣는 것은 여성을 소외시키는 것이다.

여성들이 어찌 들고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모성 함께 쓰기'가 내겐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부모성 함께 쓰기'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후 사무실 직원 20여명에게 부모성을 함께 쓴 이름을 말해보도록 한 적이 있다. 어감이 이상한 성씨가 있어 한바탕 웃기도 하였으나 그런 경우엔 앞뒤를 바꾸든지 외할머니 성을 넣어도 괜찮을 것이다. 다만 직책으로 부르게 되니까 '부모성 쓰기'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부모성 함께 쓰기 뱃지가 나왔단니까 이를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가지 좋아진 점은 아내가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꼭 '정동진' 씨를 찾으시니 전화를 바꿔주는 이가 곧 아내인줄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전에는 전화받는 직원이 눈치없이 "아, ○○동에 사시는 ○○○씨세요?" 하여 아내의 심기를 건드려 그때문에 바가지질 끊히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14년 전 결혼을 할 때 친구나 동료들이 '직장을 가진 마누라에게 외조를 해 주어야 할 입장이 되면 잡혀살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들을 해주었다. 아내가 바쁘다 보니 집안청소를 한다던가 아이들 숙제를 보아준다던가 하는 일들이 더 많아 지기는 했다. 그러나 덕분에 반복되는 가사일이 만만치 않은 일

임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급식할 때 무슨 반찬이 맛있었는지 모르는 아빠들은 이 행복을 모를 것 아닌가.

얼마 전 젊은 여성 30여명과 10여명의 남자가 있는 모임에서 '남아선호관', '부모성 함께 쓰기'에 관한 토론을 해 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의외로 젊은 여성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에 놀랐다. 결혼하자마자 부딪칠 문제인데 눈앞의 연애, 사랑, 결혼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부가(夫家)입적 결혼하면 남편의 집안으로 호적을 옮기는 것이 여성에게는 커다란 함정이 된다는 것도 이번 운동을

하면서 아내에게 얻어들은 이야기이다. (젊은 여성들이여! 분발하라!)

우리들 40대는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마누라'고 생식키는 '맛벌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서서히 '마누라의 자

아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맛벌이'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이 바라는 바 남녀평등한 법들의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정동진/ 한국테마하우스 대표